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오랜시간 간직해 온 흔적이
벤 빛바래고 낡은 헌혈증 195장
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주소지는
'목1동 현대타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목동 어딘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
장한장 모아졌을 작은 씨앗들입니다. 드러내
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는 더디지만 강한
힘을 가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부풀어 오른 땅, 물기를 내비치기 시작하는 나무들과 푸릇푸릇해
진 산과 들, 곳곳에서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조혈모세포기증, 장기기증, 성당 전신자가 1년 동안 모은 성금기부, 생애
첫기부, 유산기부, 나눔가게·기업, 산삼기부 등 하느님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각
성당 신자와 후원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의 땀과 정성과 기도가 담긴 나눔을 통해 질병과 가난에서 일어서는 수많은 수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비
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밝은 빛과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
자·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려는 마음은 하나, 방법은 무한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형무형의 나눔은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눔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매일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신자분들의 특별한 기부

서울대교구 **논현2동본당**에서 2010년 12월부터 생명수호에 전신자가 뜻을 함께하고 성당 곳곳에 모금함을 마련, '하루 100원 이상 모으기 운동'을 펼쳐 1년을 모아 이천오백만 원을 '생명수호기금'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창5동본당·**서초동본당** 신자분들은 매년 외국동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주고 있으며, **가락동본당**·**잠원동본당**·**성산동본당** 초등부 어린이들과 **후암동본당** 복자유치원 원아들은 사랑의 저금통을 만들어 모은 성금을, **방배동본당** 초등부 학생들은 직접 만든 비누와 액세서리를 판매한 수익금을, **성산동본당** 초등부는 묵주와 쿠키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해주셨고 이 성금들은 지구촌빈곤국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면 탓으로 소개되지 못한 다른 많은 성당과 신자분들께서도 사랑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 **논현2동본당 생명수호기금 전달식** (사진 좌-논현2동본당 장화순 마카엘 총회장, 우-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

산삼10% 소아암 환자 위해 쾌척, 사진액자·상품권·약품 등 다양한 형태 기부 줄이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전해달라며 가격을 매기기 힘든 고가의 산삼을 전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산삼을 쾌척한 산삼감정협회 박형중 대표는 9년째 자신이 캐는 산삼 10%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4년째 사진액자를 기부하는 이도 있습니다. 2008년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아들(이준수 사도요한)이름으로 생애첫기부에 참여했던 이종혁(도미니코, 서초3동본당)씨는 이듬해부터 생애첫기부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기념으로 주는 액자를 무료로 제작해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업을 하는 이씨가 지금까지 기부한 액자는 80개가 넘습니다.

직장에서 우수사원에게 주는 상품권을 모아 기부한 정릉4동본당 초등부 주일학교 김혜정(안젤라) 선생님도 있으며, 몸이 아픈 외국 반곤 어린이들을 위해 싸달라며 3년째 비타민·아동건강식품 등을 기부해 주시는 사당동본당의 김보라(체칠리아) 약사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기부에 참여해 감동을 줍니다. 서울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친구를 위해 학용품을 직접 만들어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본부로부터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완쾌한 환아 이다연 양의 할머니는 직접 만든 머리핀 100여개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와 환우지원사업 담당 이선애 수녀가 일산 국립암센터를 찾아 다발성경화증으로 투병 중인 조**님의 부인에게 기증받은 산삼을 전해드렸습니다.

생명나눔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 탄생!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사장 김용태 신부)가 지난 3/21(수), 2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배출했습니다. 2003년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모두 2만8936명이 기증을 희망했고 이 가운데 환자와 조직이 맞아 실제로 기증을 한 이가 2012년 3월로 200명이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혈액암으로 절망적인 투병을 해 온 환우 200명이 새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200번째 기증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전신마취도 하고 무지 아픈 줄 알았는데
헌혈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분이
잘 이겨내고 꼭 완치되셔서
그가정이 함께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서울 한양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장 이영호 교수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있는 이희수 씨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3/21(수),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21층 성분헌혈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한 젊은이가 침대 위에 올랐습니다.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전할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의 주인공은 28세의 대학생 이희수 씨로, 본부가 배출한 200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의 주인공입니다.

이 씨는 “1월에 조혈모세포 기증받을 분이 확정됐다는 전화를 받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기인데다 무척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온 터라 망설였는데 실제 해보니 듣던 거랑은 전혀 달랐다”고 말하며 “흔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전신 마취 상태에서 골반뼈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골수이식’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마취 없이 헌혈하듯 조혈모세포를 채집(말초혈 채취)해서 크게 아프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 국민대에서 진행된 기증 캠페인에 참여했고, 4년 만에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 실제 기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씨가 기증한 조혈모세포는 병마와 절망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환우에게 문자 그대로 부활을 선사한 것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나의 나눔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문의 02.727.2268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

국제 청년 자원 활동 『띠앗누리』 14기 모집

마음을 열면 지구촌 이웃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며 한 형제·가족이 되는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4기를 모집합니다.

- 일시 5/19(토) ~ 8/14(목)
※ 국내 및 현지활동, 해단식 포함
- 현지활동 7/25(수) ~ 8/8(수)
- 장소 서울시 명동 외·몽골 중문대 유목민 센터
- 접수 4/6(금) ~ 5/6(일)
※ 상세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 참조

하루 100원 모으기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51,283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2년 4월 6일 현재)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순절 저금통 및 주보간지 제작

2012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본회는 서울대교구 본당에 사순절저금통 및 주보간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사순절의 회개와 단식을 통해 나눔의 참 의미를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CS노인통합사례관리지원단 출범식

3/30(금),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에서 CS노인통합사례관리지원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측면의 전인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카리타스의 노인통합사례관리 구축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센터 성당에서 매일 2,4째 주 주말마다 센터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출소자, 수용자 가족, 범죄피해자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일시 4/22(일), 5/13(일) 11시
- 장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지하 성당

“해밀”가족 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번 함께 합니다.

- 문의 02.921.5093

환경사목위원회

제 13기 하늘·땅·물·벗 입문강좌

- 일시 4/24(화)~6/5(화), 총 7주간, 매주 화 10시~12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대상 우리농 본당 신입활동가, 회원, 후원회원, 각 본당 환경분과원, 분과장, 그 외 생명과 생태, 소박하고 느린 삶을 원하는 사람 80명
- 강좌내용 환경, 사도직, 사회교리, 농업농촌, 현장체험, 먹을거리, 생활재 이야기, 초록피정 등
- 참가비 7만원(초록피정·교재비 포함, 현장체험 1만5천원은 별도), 신청 131-000-080204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문의·접수 4/18(수)까지 02.727.2275/2278 fax 02.727.2279

2012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29회 혼 자리축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될 행사를 개최합니다.

- 일시 4/29(일) 10~15시 ● 장소 과천 서울랜드
- 대상 등록단체 장애인복지분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서울대교구 본당 재가장애인
- 문의 02.727.224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 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 | |
|-------------------------|---------------------------|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슈퍼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헤어 |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강정협회 | 4호점. 서울 성수동 (주)이피코리아 |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6호점. 서울 필문동 (주)계문사 |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10호점. 서울 수서동 (주)무원NB건축사무소 |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갈국수 |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온 정신과의원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7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 첫 기부’ 운동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400호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생애 첫 기부’는 아기 돌잔치 등을 여는 대신 그 비용을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와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나눔입니다. 백혈이나 돌잔치 외에도 입학 또는 졸업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그 돈을 기부하거나 자녀 교육 차원에서 기부를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참 좋은 몫을 실천해 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
| ● 한세린 도미니카
(2002.2.18생 父 한상률/ 母 이명희),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 송준섭 사무엘
(2011.04.15생 父 송인재/ 母 이진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윤은성 마리스텔라
(2011.03.01생 父 윤지훈/ 母 이려진),
36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박민재
(2008.01.30생 父 박성환/ 母 김수진),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한린 마르첼리노
(2011.2.17생 父 한상률/ 母 이명희),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 신기창
(2011.12.03생 父 신훈섭/ 母 김윤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정지안 요안나
(2011.02.01생 父 정용인/ 母 홍은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정재윤
(2011.03.31생 父 정형중/ 母 박혜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김예련 로사
(2011.03.07생 父 김주윤/ 母 김혜영),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 오서연 릴리안
(2011.01.22생 父 오진훈/ 母 한진희),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 김승주 (2011.12.22생 祖母 이문자),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 서은후
(211.04.02생 父 서정우/ 母 이서연),
1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정수아
(2011.04.29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양준원 마카엘
(2011.02.18생 父 양성구/ 母 황선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이세라 데레사
(2011.03.28생 父 이성현/ 母 안수현),
3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박민서 젤마갈가니
(2011.02.25생 父 박영진/ 母 손지혜),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장민서 스텔라
(2009.03.24생 父 장준영/ 母 김지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허선 요셉
(2011.04.13생 父 허성권/ 母 조윤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기영선 라파엘
(2010.03.09생 父 기성목/ 母 김정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호재 (2010.04.07생 祖母 김순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 정현민
(2011.03.29생 父 정명덕/ 母 박지수),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수연
(2011.03.31생 父 김무승/ 母 송혜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홍리은 엘리사벳 (2011.12.15생 祖母 하순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 김주원 헬레나
(2011.04.06생 父 김희성/ 母 황지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